

글·사진 : 편집부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성료

대한민국 축산업의 현주소를 재조명 축산 신기술 한자리에 모여



축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7회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11)가 지난 9월 21일부터 4일간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됐다. ‘친환경 축산, 미래의 녹색 희망’이란 주제로 국내외 243개 업체가 참여, 803개 부스 규모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축산 생산단체가 공동 주최하고, (사)대한양계협회가 주관했다.

이날 개최사에서 이준동 대한양계협회장은 “국제축산박람회는 국제박람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13개국에서 243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단순히 첨단기계 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까지 모두 알릴 수 있는 박람회”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축산업의 기술과 기자재 위상을 세

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정규 농림수산식품부 2차관은 이날 치사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박람회의 규모는 우리 축산업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세계 축산업의 모범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한국국제축산박람회가 단초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박람회가 열린 엑스코 행사장에는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축산정책 홍보관’과 ‘대한민국 축산기술관’을 비롯해 사료 및 동물약품, 각종 기자재 분야 전시·홍보관이 마련돼 국내외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정보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국내



① 한국국제축산박람회 전경 ② 농림수산식품부 부스 ③ 농촌진흥청 부스 ④ 축산가족사진관

축산업의 기술 발전과 설비 현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마련되었는데 국내외 축산기자재 이외에도 축산에 쓰이는 배합사료, 영양제, 첨가제 등을 생산 업체별로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유통 관리 시스템 등 최신 기술정보도 볼 수 있었다.

한편 전시장에서는 우리 협회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있는 업체들이 박람회 부스에 참가하여 눈길을 끌었다. 독립부스로 참가한 (주)건지 및 (주)성광시스템 그리고 T/S현대축산, (주)다르마, (주)신일산업, 신한바이오캡이 그 주인공. 먼저 전북 김제에 소재한 축산자동화설

비 공급업체 (주)건지는 아직 양계농가에 보급되지 않은 고상식 축사를 선보여 관련업계 종사자의 큰 관심을 끌었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소재한 축산자동화 전문 제조업체 (주)성광시스템은 대표품목인 사료자동급이 급수시스템과 자동환기시스템을 전시하여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전북 익산에 소재한 (주)다르마는 낱플 생산업체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IMPEX사에서 국내 유일하게 공급을 받는 업체로, 급수 시스템 및 환기 시스템의 전시로 관람객들의 신뢰를 더했다. 또한 경남 김해에 소재한 축산사료자동급이기, 축산기자재 전문제조업체 T/S현대축산은 각종 급이기와 사료통의



⑤ (주)건지의 고상식계사 ⑥ (주)다르마 부스 ⑦ (주)성광시스템 독립부스 ⑧ TS현대축산 부스 ⑨ 신한바이오켄 지키티 급수시스템 ⑩ 신일산업 부스

전시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전남 나주시에 소재한 축산자동화 설비전문업체 신일산업은 코티 니플급수기를 관람객들의 키를 맞춰 직접 전시장에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이해와 편의를 도왔다. 지키티급수시스템으로 유명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신한바이오켄은 천장에 급수시스템을 직접 설치하여 관람객들의 관심을 끄는 한편 소독제 K-7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또한 이번 박람회는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전시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

한 서비스 시설을 준비했다. 전년보다 관람객 쉼터를 확장하였으며, 푸드코트를 운영하는가 하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양축농가를 위한 안마 및 지압 서비스 존과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포토존과 포토 서비스, 퍼팅 존 등의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가 펼쳐진 것.

특히 이번 박람회가 대구에서 처음 개최된 만큼, 대구시민의 발길을 전시정으로 이끌 수 있는 할인행사도 준비됐다. 대구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로 축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축산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박람회가 열리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